



고성고 바이애슬론 7년만에 전국 제패

제26회 회장컵 전국바이애슬론대회 단체전 1위 ... 2학년 이재권 · 이한송 · 장윤호

장윤호 선수 금-은-은 메달 3개

동계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고성고등학교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제26회 회장컵 전국바이애슬론대회 단체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7년만에 전국을 제패했다.

고성고는 그동안 각종 대회에서 항상 정상권을 유지했으나 전국 대회 1위를 차지한 것은 7년만의 일이다. 고성고는 이번 대회에 앞서 1월 20일 열린 제23회 문화부장관컵에서도 남고부 계주 3위에 그치는 등 최근 우승의 운이 부족했었다.

고성고는 그러나 우승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마침내 지난달 30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제26회 회장컵 전국바이애슬론대회 단체전에서 장윤호 · 이한송 · 이재권(2학년)이 출전해 1시간 7분 29초로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앞서 28일 열린 개인전에서는 장윤호 선수가 남고부 10km 스프린트에서 29분 31초로 2위를 차지한데 이어 29일 열린 15km 개인경기에서도 48분 6초로 2위를 차지해 이번 대회에서만 3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초등부

52명, 중등부 52명, 고등부 40명, 대학 및 일반부 25명 등 총 169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고성고 6명, 고성중 4명, 간성초 1명 등 11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3개의 메달을 딴 장윤호 선수는 “첫날 스프린트에서 메달을 땀을 뺀 정말 꿈만 같았으며, 15km 개인전은 컨디션이 최상이 아니었지만 한번 부딪혀보자는 마음으로 달렸다”며 “이틀간 경기가 너무 힘들어 단체전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홍성윤 코치님과 천강훈 선배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줘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장윤호 선수는 또 “저를 비롯



지난달 30일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경기장에서 열린 제26회 회장컵 전국바이애슬론대회에서 단체전 1위를 차지한 고성고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권, 이한송, 장윤호 선수.

한 선수들이 힘들어 할 때마다 잡아주시는 코치님과 강훈 형에게 감사드린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선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성윤 고성고 스키코치(31세)는 “먼저 영하 20도를 밑도는 강추위 속에서 고생하는 우리 선수

들에게 고맙고, 후배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천강훈씨와 많은 도움을 주신 박용철 선생님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대회가 더 남아 있는데, 지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수역원 빛더미...감척해 달라”

특집 / 정치망 어업의 허와 실 **3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폐콘크리트, 페아스콘, 임목, 폐목)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지정폐기물(슬레이트, 석면) 철거업 ◇순환골재(40미리 이하, 석분, 토사) 생산 판매업 ◇재생 아스콘 생산 판매업 ◇폐합성수지처리업(어구, 어망, 그물 등) ◇수집·운반업(장비대여업)

창간 **1** 주년
GOSEONG WEEKLY NEWS

오늘의 당신의 생각이 내일의 미성의 얼굴입니다

- 고객만족 최고 기업
- 꿈과 미래가 있는 기업
- 환경을 최고로 생각하는 기업



남성연 대표이사

미성환경(합)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기업